

## 20세기 현대미술 거장 루오를 만나다



5일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 개막식에 참석한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 등이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포피두센터와 조르주 루오재단이 엄선한 200여 점의 작품을 만나는 이번 전시는 2023년 1월 29일까지 열린다. /광양=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조르주 루오 작 '베로니카'

### 인간의 고귀함 지킨 조르주 루오 특별전 전남도립미술관서 개막 '베로니카' '루드밀라' 등 유화·판화 200여점 블록버스터 전시

'인간 모두가 고귀한 세상을 꿈꾼 루오를 만나다.'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조르주 루오(1871~1958)의 대표작을 만나는 특별전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2023년 1월 29일까지)이 5일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16면>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일보, KBS 광주방송총국이 주최한 이번 특별전은 프랑스 국립포피두센터와 조르주 루오재단에서 엄선한 200여 점의 유화·판화 작품을 선보이는 블록버스터 전시다.

'여인들 그리고 정물과 풍경',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서커스와 광대' 등 5개 섹션으로 구성된 이

번 특별전에서는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58점의 판화 연작 '미제레레'를 비롯해 '베로니카', '루드밀라', '어린 베에로' 등을 만날 수 있다.

동시대 누구보다 삶과 사회상을 대담하게 풍자한 루오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깊은 애정을 가져왔고 인간 존엄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송고한 인간애를 작품으로 표현해왔는데 이번 전시작들엔 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을 비롯해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태근 전남도의회 부의장, 지장환 광주방송총국장,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르주 루오 재단 등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번 전시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연대기적 구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루오의 시대정신을 담은 작품들로 전시회를 꾸렸고, 이번 기획전이 갈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와 더불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전의 연계전시로 마련된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시선 공명' 전 참여작가인 광주 출신 김재혁 화백은 "42년 전 조르주 루오의 송고한 신앙과 애민정신에 감동을 받아 그의 삶과 작품을 주제로 석사 학위 논문을 썼었다"며 "직선과 굽은 마티에르가 우아하게 어우러진 '베로니카'를 좋아했는데 이번에 조르주 루오의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바이든,尹에 친서…“열린 마음으로 인플레이션 협의”

#### 대통령실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친서를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

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은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했다.

그는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청년농 3만명 5년내 키운다

정부, 정착금 높이고 금융부담 줄여

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 3만명을 길러내고 원예시설·축사 30%를 스마트 설비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농업 혁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혁신 농업을 이끌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청년층이 창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대상을 내년 4000명까지 두 배로 늘리고 금액도 월 11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한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을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 도입한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부터 조성한다.

청년농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용자금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의 상환 부담이 연간 4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팜을 시작할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용자를 지원하고 경영위기가 오면 1년간, 최대 3회에 걸쳐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한다.

첫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공공 금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하도록 하고 청년농 전용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농촌 정착민에게 주택·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권 400곳을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유입 추세가 이어진다면 청년농 비중이 2020년 기준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에서 2040년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 지갑 잡아먹는 '포켓몬' ▶6면

KIA 류지혁 "가을엔 야구가 재미있다" ▶18면



신 팔도명물 - 제주 키워 ▶22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후원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성취대로 1041 (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도현동)

\* EGS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41, 도심: 4.2, 고속도로: 3.9 | 1회 충전거리(km) : 440, 공차중량(kg) : 2405, 배터리 용량(kWh) : 90.56  
\* EGS 4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 | 도심: 3.8, 고속도로: 3.7 |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EG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 | 도심: 3.8, 고속도로: 3.7 |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차량은 표준모드에 있을 경우 최대 속도, 운전 범위, 차질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상주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차용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